

한국의 과학경쟁력 세계 7위권으로 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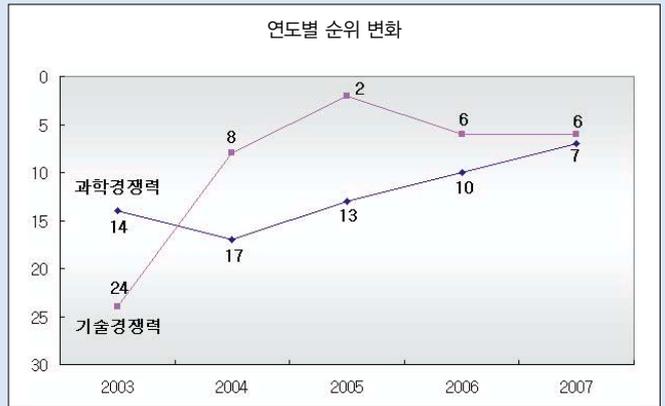
IMD, 2007년도 국가경쟁력 조사결과 발표

지난 5월 10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07년도 국가경쟁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55개 평가대상국 가운데 지난해보다 3단계 상승한 29위를 차지했다.

특히 과학경쟁력은 지난해보다 3단계 상승한 7위를 기록함으로써 IMD측이 국가경쟁력 평가를 개시한 1989년 이후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으며, 기술경쟁력은 전년수준인 6위를 유지함으로써 과학기술분야가 한국경쟁력의 순위를 견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 추진과 더불어 과학기술부총리체제 출범,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 등 과학기술 행정체계의 혁신과 함께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지속적인 확대, 창조

적 과학기술인력 양성, 차세대 성장동력의 집중 육성, 기초·원천 연구 확대, 과학기술의 대중화·생활화 등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IMD는 6월초 '2007년 세계경쟁력연감' 발간과 더불어 최종 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초연구 투자, 2010년까지 2조4,462억원으로 확대

과학기술부는 지난 5월 8일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이공계 대학과 함께하는 2007년도 업무보고'에서 기초연구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0년 2조 4천462억 원을 투자하는 등, 지속적인 확대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그 동안 기초·원천연구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임을 인식하고 기초연구 투자의 확대와 함께 기초·원천연구의 핵심인 이공계 대학의 개인연구와 신진연구자에 대한 연구지원을 늘려 왔다.

과학기술부는 이날 열린 이공계 대학 지원정책 업무보고에서 지난 4년간의 기초·원천 연구의 정책 추진현황과 성과를 분석·보고하고, 향후 중점 추진방향도 제시했다.



이공계 대학과 함께하는 2007년도 업무보고

정부, '2007 대학 연구비 지원제도' 개선

간접경비 비율을 현행 최고 15% → 20%로 확대

정부는 대학의 연구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연구개발비 중 간접경비 비율을 현행 최고 15%까지 가능하던 것을 20%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간접경비 비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따라 실소요 비용을 산출하여 과학기술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고 있으며, 대학의 경우 2006년도까지는 15% 범위 내에서 적용하도록 고시하여 왔다.

그러나 대학의 연구현장에서는 연구에 지원되는 간접경비가 실질적으로 더 많이 소요되고 있어 연구과제를 많이 수행할수록 학교 재정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동안 관련부처의 실태파악과 협의를 거쳐 대학별 3~20%까지 가능토록 의결했다.

대학에 지원하는 연구비의 간접경비 비율이 확대됨으로써 제한된 연구비내에서 연구수행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다소 적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연구비 사용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대학의 연구환경을 선진화함으로써 연구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간접경비의 확대지원과 더불어 간접경비를 직원성과급이나 국가연구사업 수주에 따른 대응자금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다음 연도 간접경비 비율 산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간접경비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제23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안건



제23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 모습

지난 4월 30일 열린 제23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계획(안)을 비롯한 융합기술 종합발전 기본계획(안)/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안)/ 국방 연구개발 역량강화 방안(안)/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운영성과 보고/ 이공계전공자 공직진출 확대방안 '06년도 추진실적 보고 등 6개 안건이 상정, 논의되었다.

이번에 수립된 '융합기술종합발전계획'은 우리 나라의 융합기술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설정하여 융합기술에 대한 산·학·연 관계자의 공통의 인식 기반을 마련하고, 범국가적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부처별 추진사업의 중복방지 및 종합지원·조정을 위한 발전전략 가이드라인 제시에 역점을 두고 있다. 기본계획에서는 미래 사회 수요를 토대로 하여 향후 10~15년 이내에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기존산업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기반이 되는 '휴머노이드 서비스로봇기술' 등 10대 중점 추진영역을 도출했다. 또한, 첨단기술간의 융합성, 과학기술의 한계 극복을 위한 혁신성, 새로운 시장창출을 위한 시장성을 고려하여 '2030 과학기술 예측'에서 휴머노이드 서비스로봇 등 12개 기술분야와 토털 로드맵에서 지능형자동차 등 15개 기술분야의 주요유망 융합기술과 로드맵을 예시적으로 제시하여 부처별 중장기 R&D계획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융합기술은 IT, BT, NT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학제간의 벽을 넘어 공통의 도전목표를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만 달성이 가능한 분야로, 선진국들도 융합기술의 잠재력과 파급효과를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다.

한편, '국방 연구개발 역량강화 방안'에서는 선진국의 첨단기술

보호 정책 심화, 전시작전권 전환 등 첨단 무기체계 독자 개발 능력 확보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방연구개발 기획체계를 내실화하고, 국방R&D 투자를 확대하며(07년 현재 국방비 대비 5.1%를 2015년 7% 이상, 2020년 10% 이상으로 확대), 산학연 등 민간분야와의 연계 강화, 국방기술정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정책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미 지난 3월 산자부와 연구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동방안의 일부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중에 신개념기술시범(ACTD) 제도 도입, 민군점용기술센터 확대개편 등 주요 제도개선 사항도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2017년까지 세계 7위권의 산림과학기술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로 국가 차원에서는 최초로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안)'도 마련했다. 이제까지의 식목·녹화 위주의 산림정책에서 삶의 질 향상, 국토보전, 산업육성 및 지구환경 대응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림서비스 향상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2007 특정기초연구지원사업(핵심기초) 신규과제 선정

개인 및 신진연구자 지원 확대

과학기술부는 학제간 공동연구(3인 이내) 및 개인연구를 통해 창의적인 기초연구 능력을 배양하고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2007년 특정기초연구지원사업 중 올해 신규로 추진한 핵심기초(개인연구)를 공모한 결과 총 2,001과제를 접수받아 257과제(150억원)를 선정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신규 공모한 핵심기초연구지원사업은 그 동안 연구자들의 개인연구 확대 지원 요청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약 8대1(12.9%)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 중에는 조교수 등 새롭게 연구를 시작하는 젊은 교수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로 선정한 '우수신진연구 94과제'와 부교수 이상의 중견교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내용과 연구절차의 독창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 '미래도전연구 38과제'가 포함되어 있어 젊은 연구자와 중견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된 과제 중 핵심기초 과제는 연간 1억 원 이내(최장 4년), 우수신진연구 과제는 연간 5천만 원 이내(최장 3년), 미래도전연구 과제는 연간 1억 원 이내(최장 3년)를 지원하게 됨으로써 개인연구자들이 심화단계의 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여성(14%), 신진연구자(30%)에 대한 국가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여성연구자는 최저할당제(14% 이상)를 도입하여 우수한 여성 연구인력의 참여를 확대하여 37과제(14.7%)를 선정했으며 신진연구자는